

한화갤러리아, 디지털 광고제 장관상 수상

앤어워드 디지털AD 사회공헌 분야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4월 전개한 브랜딩 캠페인 활동 'Right! 갤러리아(라잇! 갤러리아)' 캠페인, '라잇! 사인(Right! SIGN)' 프로젝트가 지난 17일 국내 최대 디지털 광고제인 앤어워드(&Award)에서 최고영예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후원하는 앤어워드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매년 디지털 광고나 미디어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나 단체를 선정해 발표하며 부문별 GRAND PRIX(그랑프리) 수상작 중 추가 심사자를 거쳐 장관상을 선발한다.

갤러리아가 지난 4월 전개한 '라잇! 사인'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알린 공로



갤러리아명품관 WEST 미디어파사드에서 미세먼지 위험 수준을 알리는 사이렌 영상이 송출되는 모습. /갤러리아백화점

를 인정받아 디지털 AD 부문 사회공헌 분야 GRAND PRIX를 수상하게 됐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사회공헌활동을 'Right! 갤러리아' 브랜딩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한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포토 17일



현대홈쇼핑·수협, 베트남 내 수산식품 판매확대 맞손

한국 수산식품 판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홈쇼핑과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내 현대홈쇼핑이 보유한 유통판매망(VTV 현대홈쇼핑)을 통한 한국 수산식품 판매확대 지원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베트남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증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류재준 VTV 현대홈쇼핑 법인장(사진 오른쪽)과 이중찬 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왼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현대홈쇼핑



휴넷, MBA 총동문회 '신년의 밤' 개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휴넷 권대욱 회장과 조영탁 대표를 비롯해 동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의 밤에선 동문회장 이·취임식,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의 '2020 트렌드 특강' 등이 진행됐다. 신임 동문회장에는 안다인 스페스 대표가 선출됐다. /휴넷



KFC, 北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찾아 봉사활동

글로벌 치킨 브랜드 KFC의 임직원들이 이달 초, 새해를 맞아 서울 중구 숭의여대 인근에 위치한 '여명학교'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엄익수 KFC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여명학교에 KFC 제품 약 100인분을 제공해 학생들과 교사 및 행정 직원들 모두 치킨, 버거 등의 주요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KFC 엄익수 대표(왼쪽)와 여명학교 이홍훈 교장(가운데), 조명숙 교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FC

이사·감사의 임무해태와 책임



김 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Q. 상법은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이사, 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감사를 둔 회사에서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를 횡령 등 범죄행위를 이사·감사가 감시하지 못한 경우, 이사·감사는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A.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감시의무는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평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 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부담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이를 위해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도 있다.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에 위반

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거액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및 공시하고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여 회사가 상장폐지 되기까지 이룬 사안에서, 이사·감사가 횡령 기간 중 승계참가인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승계참가인의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자 등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 해태와 유상증자대금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입은 손해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사·감사를 둔 회사에서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횡령 등 범죄행위를 이사·감사가 감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 해태, 감사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사의무 해태가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자녀와 기내모금동전 계수

'사랑의 기내 동전모으기 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이 임직원 자녀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임직원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내 동전을 계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기내 모으기 캠페인은 1994년 아시아나항공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해 해외 여행 후 국내로 돌아오는 외화 동전을 모아 전 세계 취약 지역 아동들을 지원하는 아시아나항공 최초의 사회공헌활동이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동전들은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 동아리 '오즈 유니세프' 소속 승무원들이 직접 계수해 정기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OZ UNICEF와 함께하는
아시아나 임직원 자녀 기내모금 동전 계수활동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한 임직원 자녀들이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모인 동전의 계수봉사활동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액별로 분류 및 계수했다. 동전 계수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는 아시아나항공여사관을 비롯해 기내 모형 실습실·비상탈출 훈련장 등 캐빈 승무원들의 교육시설을 견학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인사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 서울동부지청장 김태현 △ 부천지청장 공석원 △ 성남지청장 장영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소장 최상열 △ 전주지청장 김영규 △ 여수지청장 정영상 △ 청주지청장 김우동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병팔

부음

▲ 이재형(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씨 별세, 김선경씨 남편상, 이정석(미국 매

직리프 연구원)·이주연씨 부친상, 김민경(비올리스트)씨 시부상, 김석(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씨 장인상 =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 02-2258-5940

▲ 박광서 씨 별세, 박찬하(히트뉴스 편집인, 전 한미약품 홍보이사)·박찬규(전 경북교육청 청송도서관장)·박찬경(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 관리부)·박순교(안동여자고등학교 교사)·박지은(특허청 스위스 WIPO 파견 사무관) 부친상, 권오선(안동MBC 국장)·신두환(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김민건(텔트론 부사장) 장인상, 신연옥(노변초등학교 교사) 시부상 = 19일,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8시. ☎ 054-820-1495

▲ 박명걸 씨 별세, 이한주(경기연구원장)씨 장인상 = 19일 오전 5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 010-8543-4948

▲ 김명렬 씨 별세, 김운용(전 지상작전사령관, 예비역 육군대장)·김창용(지티엘리엔씨 대표이사)·김상용(씨카코리아 부사장)·김경숙(주부)씨 부친상 = 1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8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30분. ☎ 02-2258-5940